**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45장 4-8절>**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많은 집에 열한 번째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늙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의 형들에게 달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는 계속해서 눈치 없는 행동으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결국 형들은 그 동생을 해코지 할 마음을 먹습니다.

돈을 받고 그를 인신매매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열일곱 어린 나이에 이웃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와 같은 처지였다면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속에서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하냐며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앞에 얘기한 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일단 떨쳐버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국 땅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좀 살 만한 처지가 되었을 때, 또다시 그에게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친 대가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다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이번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옥중 죄수들에 대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감옥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일이 계기가 되어,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번엔 그 파라오의 인정을 받아 약관 삼십 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누가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니, 이게 어디 본인이 꿈꾸고 노력한다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 단이 그의 곡식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의 별을 향해 절하는 꿈.

물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 당시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보았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결국 요셉은 놀라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에 예견된 대로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닥치자, 가나안 땅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다는 교훈입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낙심되고 원망스런 상황들 속에서도 요셉이 그처럼 한결같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특별한 꿈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 꿈과 같은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꿈이 그가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어떤 실낱 같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의 삶의 질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처럼 늘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쩌다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도 한결같이 성실하기 어렵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처럼 마음을 다해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요셉이 오직 그 꿈만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후 그는 자기 형들을 끝끝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요셉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45:5a)**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45:5b)**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본문 8절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45:8)**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은 후에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데 분명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선하신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라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온 사람만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제껏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식하고 이를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편애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어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실 지금 요셉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연이어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연이어 그에게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닥쳤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 걸어가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는 놀랍게도 형통함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심지어 그의 주인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 저 요셉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저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 주인이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집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즉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난이 더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작정한 분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아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관계 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옥중에 있던 두 관원장의 얼굴에 어느 날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건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파라오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오만하거나 주저하는 태도가 아닌 담대한 겸손의 태도로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아울러, 곧 닥칠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지혜도 주십니다.

파라오가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까지 이렇게 요셉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그에게 너무도 자연스런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드려내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복을 내리셨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이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스스로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그 후대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 아들 요셉에게까지 전승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며 살도록 보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소명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은 그저 장애물에 불과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은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더 온전히 성취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듯,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써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낸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나누는 일도 포함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약 1:17).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여러 영적인 보화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을 더 풍성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이나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격려와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신실하게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구하며 흘려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는 그 자리에서**

**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정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